



## 제39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 4개 시·도지부, 43개 시·군·구지회 주최로 거행

### 1981년부터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일(10.30.) 맞춰 개최



◇충남 아산시지회가 10월 23일 아산시 남산안보공원 자유수호위령탑에서 개최한 합동위령제 행사장 전경.

광복 이후 자유수호 투쟁에서 산화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안보의식 제고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운동 선도를 다짐하는 제39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6·25전쟁 등 우리 현대사의 역정(歷程)에서 북한군과 공산무장공비들에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 90여 만 명을 추모하고 이들의 호국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1981년부터 매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일인 10월 30일을 전후해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해 오고 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시·도지부 단위로는 울산시지부가 10월 30일 신정동 남산사에서, 대전·강원지부가 10월 31일 자유회관 내 자유수호희생자영령추모탑제단, 춘천지구 전적기념비에서, 세종시지부도 11월 1일 세종문화원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각각 위령제를 거행했다.

이 밖에 전남 무안(10. 2), 강원 영월·충북 청주·충남 아산·전북 진안·경남 함양(10. 23.) 등 전국의 42개 시·군·구지회가 11월 18일 현재 위령제를 완료했다.

제39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오는 29일 전남 화순군지회가 남산공원 내 충훈탑에서 개최하는 위령제를 끝으로 종료된다.

## 2019 전국 시·군·구지회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

### 대전 KT 인재개발원서 1박 2일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11월 14~15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2019년도 전국 시·군·구지회 사무국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총 조직의 '핵심'인 사무국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 국민복 가치관의 정립·확산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사무국장 220명이 참석, 국민복 가치관 정립·확산 활동의 결의를 다졌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국민복의 이해, 사무국장의 역할 등에 대한 특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사업 소개, 본부 주요업무 공지가 이어졌다.

2일차에는 김상홍 부산 영도구, 차두진 인천 남동구, 오영훈 강원 원주시지회 사무국장이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정년을 맞은 류경호 부산 연제구 사무국장 등 5명에게 공로패가 윤여백 경기 안양시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총대표장이 수여됐다.

한편 박종환 총재는 개강식 격려사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넓혀간다면 우리 자총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랑스러운 국민운동단체가 될 것이다"라며 사무국장들의 왕성한 활동을 당부했다.



## 성명서

#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반복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초대형방사포는 북한의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상으로 최대 370km를 비행한 것으로 유사시 한반도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2번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다. 그동안의 남북한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노력을 비롯하여, 대화 국면을 통해 시간을 벌어가며 개발한 신형 무기를 마음껏 성능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10월 2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방사포를 발사한 것이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를 전한 지 하루 만에, 31일 정례절을 마친 직후 행해

진 도발이어서 국민들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북한은 그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관광마저 송두리째 뺏아버릴 기세다.

10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이틀만인 25일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에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시설을 철거하라며 우리 측에 협상을 제안했다.

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의 실무협상을 위한 만남 제안마저 거부하는 등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휴짓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북한 당국자들은 또 "젊은 소대거리도 양천대소할 노

릇", "갑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등의 몰지각한 막말로 인내와 타협으로 이뤄온 남북의 화해 분위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자총은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북한의 변화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다. 자총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한반도 평화정착과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끝 간 데 없이 이어지는 미사일 도발과 막말 그리고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요구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향한 민족적 대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를 염원해 왔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행위이다. 자총은 평화통일 못지않게 그 길로 가는 과정 또한 중

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 된 대한민국의 국민복(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자총은 대한민국 최대 국민운동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룰 때까지 평화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위협 행위와 막말을 중단하라.

하나.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신중하게 이행하라.

2019. 11. 1.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

총재 박종환  
350만 회원 일동